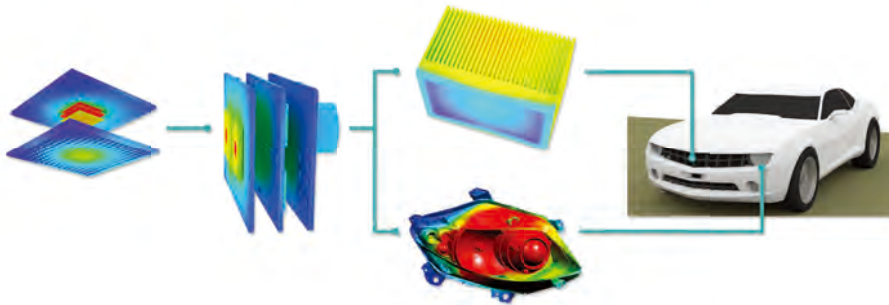


지멘스
PLM소프트웨어

자율주행 전기차 설계에 특화된 열 시뮬레이션 솔루션 출시



지멘스는 자율주행 전기차(AEV)의 설계의 열 시뮬레이션을 위한 새로운 심센터(Simcenter™)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지난 9월 20일 출시했다.

이 솔루션은 전기차량의 주행거리 확대, 승차감 최적화, 센서 설계 및 모든 자율주행(AD, Autonomous Drive) 시스템 안정성 보장 등 AEV 설계와 관련된 중요한 열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용이 간편한 업계 최초의 포괄적인 솔루션이다.

새로운 심센터 열 시뮬레이션 솔루션은 심센터 포트폴리오의 일부로 제공되며, 설계 엔지니어가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특별히 고안되었다. 차세대 AEV 설계를 뒷받침하는 파워트레인, 프로세서, 센서, 그 외 핵심 기술의 정밀한 열 디지털 트윈 시뮬레이션을 생성함으로써,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풍부한 정보를 갖춘 전산 유체 역학(CFD)기술이 갖고 있는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또 구성요소 열·전기 파워트레인 성능 등

시뮬레이션, 전기 및 열 관리를 위한 전기 모터 성능과 시스템 시뮬레이션 간 연결, 열 디지털 트윈 모델을 사용한 설계 공간 탐색 등이 있으며, 전자 설계 자동화 도구와 CAD 설계 플랫폼에 대한 원활한 연결을 제공하여 엔지니어들은 개발 초기부터 전자와 전기, 기계 영역을 넘나들며 상호의존적 설계를 쉽게 구현할 수 있다.

얀 루리단(Jan Leuridan) 지멘스 PLM 시뮬레이션·테스트 솔루션 수석부사장은 “1세대 AEV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열과 기계, 전기 설계의 지능적 통합이 필요하다. 지멘스는 이 분야에 독보적인 기술과 품질력을 갖고 있다. 새로운 심센터 열 설계 솔루션은 전동화와 자율주행 차량 기능을 다루는 솔루션으로, 설계 팀은 이를 활용해 쉽고 정확한 가상 프로토타입을 만들어 최적의 설계 효율을 낼 수 있다.